

Esthetic endodontics

이 우 철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보존과

심미치과에 대한 술자들의 열의는 근관치료 영역에까지 불어 닥치고 있다. 특히 매일같이 무의미하고 치조골 속에 파묻혀 있는 구조물에 대한 치료이기 때문에 치료 해주고 나서도 처음이랑 별반 다를 바 없는 근관치료를 해야하는 대다수의 치과의사에게 있어서는 심미 근관치료란 용어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아니, 존재해서는 안되는 항목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인체에 숨어 있는 아름다움을 찾아 회복시켜 주고 주위조직과의 조화를 찾아주는 것이 직업인 치과 의사의 사명감은 근관치료라고 예외일 수는 없는 것이다. 치조골 속에 숨어있는 치근의 구석구석에는 사람의 인체의 모습을 축소시켜 놓은 것과 같은 아름다움이 숨어 있고 그것을 변형시키거나 문제를 만들지 않고 그대로 재현시켜주는 것이 심미 근관치료의 핵심이라 할 수 있겠다. 물론 단지 보기만 좋으라고 심미 근관치료를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다. 근관으로의 접근성과 세척, 약제주입, 근관충전 등의 번거롭고 효과가 없을 것 같은 과정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 진다는 장점이 저절로 따라오기 때문이다.



|| 그림 1. 상악대구치 치근의 모습



|| 그림 2. 각도에 따라 평범해 보이기도 하지만



|| 그림 3. 또다른 각도에서는 근심근관 근첨부 위의 급격한 만곡이 확인된다.



|| 그림 4. 하악대구치에서는 만곡이 곧잘 관찰되는데



|| 그림 5. 우리가 볼 수 없는 숨어있는 3차원에서 또 하나의 만곡이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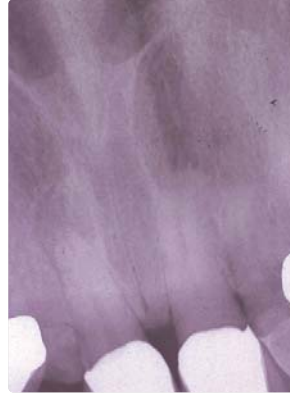
|| 그림 6. 한번의 만곡으로도 충분히 힘들고 어려운 case가 되겠지만



|| 그림 7. 또 한번 만곡이 있으면 치료과정이 왠지 꼬인다 꼬여



|| 그림 8. 이전에는 이렇게 근관 형성하고 충전하는 것이 최고로 잘해주는 것이라 배웠다.



|| 그림 9. 전치부 직선근관 초기사진



|| 그림 10. 근관충전후 시원하게 충전된 모습



|| 그림 11. 상악 소구치의 조금 삐딱한 근관의 초진사진



|| 그림 12. 근관충전을 간신히 완료하고 나서 보니 만곡이 심하긴 심하다.



|| 그림 13. 이런 경우 기울어진 피사의 탑과 비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림 14. 보티첼리의 걸작 비너스의 탄생이다.



그림 15. 이정도 작품이면 하악 제2비너스 치아의 탄생이라고 하면 어떨까?



그림 16. 같은치아. 비록 cone cut 이지만 예술적 감상의 point가 충분하다.



그림 17. 역동성이 강조된 조형물



그림 18. 전공의 이경욱 선생이 치료한 증례의 초진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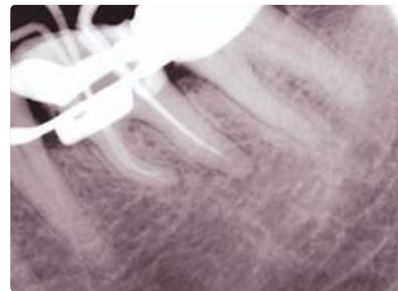


그림 19. 단지 병소 치료를 위해 시작했지만 숨어있는 아름다움이 서서히 들어난다.



그림 20. 근관충전 후 만곡과 직선이 어우러진 역동적인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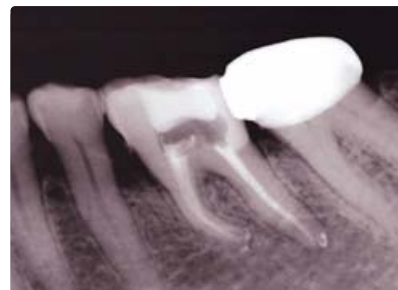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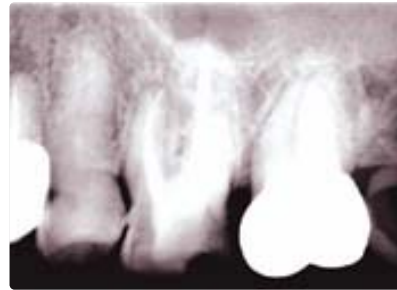
그림 21. 엘레강스하고 판타스틱한 치아뿌리의 리얼리티가 과감히 표출된 엑셀런트한 작품이다.



|| 그림 22.
르노아르의 사실적이고 인상
적인 춤추는 여인의 모습



|| 그림 23. 전공의 김지은 선생의 증례로써
hand file로 형성한 작품이다.



|| 그림 24. 춤추는 여인의 손모양과 같은 근심
및 원심 치근의 모습이 단아해 보인
다.



|| 그림 25. 모네의 충격적이면서도 마음을 움
직이는 걸작.



|| 그림 26. 모네의 작품 속에서 앉아있는 여인과
같은 자태를 보이는 치아의 모습